

표현의 자유의 적, 대학생들의 '위축효과'에 대한 실증적 고찰

: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정치·사회, 학내 문제의 위축효과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 정 기*

한양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책임연구원

■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의 적으로 평가받는 위축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대학생 집단의 온·오프라인 상황, 교내와 정치·사회적 문제에서의 위축효과 결정요인을 확인해 내고자 했다. 이 연구의 핵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학내 문제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존감(-), 표현의 자유 인식(-), 보복에 대한 두려움(+) 변인이었다. 둘째, 온라인 정치·사회적 문제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전통적, 피동적 소통(+), 보복에 대한 두려움(+) 변인이었다. 셋째, 오프라인 학내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존감(-), 표현의 자유 인식(-), 보복에 대한 두려움(+) 변인이었다. 넷째, 오프라인 정치·사회적 문제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현의 자유 인식(-), 보복에 대한 두려움(+) 변인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위축효과의 실체를 일부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축효과의 극복방안에 대한 실천적 제안을 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주제어: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학내 문제 표현, 정치적 문제 표현

* jkl8181@hanyang.ac.kr

목 차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II.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
 - 1. 표현의 자유와 위축효과의 개념
 - 2. 위축효과 관련 논의와 한계
 - 3. 위축효과의 촉진(억제) 요인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2. 주요 변인의 측정
 - 3. 분석방법
- IV. 연구결과
 - 1.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2. 연구결과의 요약
- V. 결론 및 논의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표현의 자유의 위기다. 보수정부로 통칭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제기자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ères)와 국제 NGO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그리고 UN(United Nations)은 끊임없이 국내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예컨대 국경없는 기자회에 의하면 2006년 세계 31위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순위는 2016년 70위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프리덤하우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 순위는 2011년 부분적 표현의 자유 보장국으로 강등된 이후 2016년까지 표현의 자유 보장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이정기, 2016).

국경없는 기자회와 프리덤하우스, UN 등이 국내의 표현의 자유 순위를 저평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각종 규제 법률, 소송으로 표현의 자유

를 억압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표현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특히 2016년 하반기 가장 큰 사회 이슈인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경우 정부의 언론탄압(수사, 세무조사 등)에 근거한 표현 위축의 효과, 즉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의 훼손이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김창룡, 2016. 11. 24). 정부와 권력 기관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등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공적 영역의 발언이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김예지, 2016. 9. 2).

최근 한국 사회에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위축현상이 유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될 수 있다. 여론 수렴의 과정, 즉 하의(下意)의 상달(上達)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정치적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다만, 전술했듯 각종 표현의 자유 규제 법리와 표현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의미한다. 표현의 자유 규제 법리와 정부의 규제가 시민들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하게하고(변상호·정성은, 2012), 불안을 부추겨 스스로 입을 닫게 하는(이희정, 2014. 10. 10)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축효과는 표현의 자유의 적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위축은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

이에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축효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위축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검토하고, 위축효과의 유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함으로써 위축효과의 원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이 연구는 정치적 참여와 표현에 소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위축효과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한 발 더 나아가 대학생들의 생활공간인 대학의 학내 문제에 대한 표현과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표현의 위축효과 원인을 포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위축효과 극복방안에 대한 실용적인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이 높은 집단, 취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높은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최근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표현이 일부 증가하고 있지만, 총학생회 선거와 같은 학내 문제에 대한 관심과 표현은 더욱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구민정, 2016. 12. 5). 이러한 상황에서 학내 문제와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위축효과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일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표현 위축의 원인을 규명하고, 위축효과에 대한 극복방안을 탐색적인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 이 연구가 위축효과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위축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교육 전략, 홍보 전략)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

1. 표현의 자유와 위축효과의 개념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냉각효과로 번역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위축효과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황성기, 2008), 공권력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합법적 표현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김형성·임영덕, 2009),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객관적, 합법적 표현의 발화를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자기검열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태(박경신, 2009), 권력기관, 대기업, 사회, 이익단체, 불특정 대중 등의 우월적 위치를 인식하고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는 행위(변상호·정성은, 2012), 불안을 부추겨 스스로 입을 닫게 하는 행위(이희정, 2014. 10. 10)라는 정의가 존재

한다.

결과적으로 위축효과는 권력을 가진 외부의 직·간접적, 유·무형의 압력에 의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개념이 위축효과인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표현 위축은 자유로운 의견표현과 여론형성을 가로 막는다. 즉 자유로운 표현의 보장은 민주적 여론형성의 필수 요소다(김형성·임영덕, 2009). 다시 말해 대의민주사회에서 위축효과는 하의(下意)의 상달(上達) 체계를 망가트리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정기, 2016).

〈표 1〉 위축효과의 개념

구분	정의
황성기(2008)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
김형성·임영덕(2009)	공권력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합법적 표현행위 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
박경신(2009)	국가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이 객관적, 합법적 표현의 발화를 스스로 검열하는(자기검열) 행위
변상호·정성은(2012)	권력기관, 대기업, 사회, 이익단체, 불특정 대중 등의 우월적 위치를 의식,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는 행위
이희정(2014.10.10)	불안을 부추겨 스스로 입을 닫게 하는 것
이정기(2016)	외부의 압력(정치, 자본)에 의해 자유로운 표현 활동이 축소되는 현상

한편,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6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한 부당 해고가 급증하게 되었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검열과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 급증하게 되면서 국정

없는 기자회견, 프리덤하우스 등이 조사하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순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며 사회 전반적으로 위축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위축효과가 지양되어야 할 개념이라는 측면, 즉 양자가 서로 상충적인 개념이라는 측면을 확인케 한다.

2. 위축효과 관련 논의와 한계

위축효과와 관련된 논의는 언론법의 영역과 실증적 수용자 연구의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다. 언론법의 영역에서 김형성과 임영덕(2009)은 미국의 위축효과 법리를 분석하고,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사이버 모욕죄를 검토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사이버모욕죄가 인터넷 공간에서 위축효과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진과 이정기(2011)는 다양한 유형의 판례분석을 통해 위축효과를 예방하고, 표현(언론)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principle), 공인이론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언론법의 영역에서 진행된 위축효과 관련 논의는 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이 위축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과 위축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법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실증적 수용자 연구는 주로 내부고발과 같은 표현의도 또는 위축효과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예컨대 내부고발 등 표현의도와 관련된 대표적 실증연구는 백윤정과 김보영, 김은실(2016)의 연구, 야오(Yao, J, 2012)의 연구다. 구체적으로 백윤정, 김보영 그리고 김은실(2016)의 연구에 따르면 상사가 윤리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수록,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규제지향적 윤리프로그램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수록 내부고발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야오(Yao, J,

2012)에 따르면 도덕성이 높을수록,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낮을수록, 순응, 가치지향적 윤리프로그램 지향성이 높을수록 내부고발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축효과와 관련된 대표적 실증적 연구는 변상호와 정성은(2012, 2013) 등의 연구다. 예컨대 변상호와 정성은(2012)은 실명성과 조직 소속 여부, 개인의 정치성향이 SNS상에서의 위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실명성은 정치경제 이슈에서, 비판성향은 정치사회 이슈에서 의사표현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소속 여부가 위축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후속연구인 변상호와 정성은(2013)의 연구는 대기업 뉴스 노출, 지식, 위력지각이 SNS상에서의 위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그 결과 SNS에서 대기업에 대한 위축은 중소기업에 대한 의사표현 위축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 관련 뉴스노출이 대기업 관련 지식과 위력지각 강화를 매개로 의사표현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변상호(2015)는 SNS 공간에서 대기업의 검열활동에 대한 개인 자신의 두려움이 의사표현 위축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한편, 전란영과 김희화(2016)에 따르면 자존감은 부모의 비밀관적 양육 및 과잉간섭적 양육이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위축효과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위축효과와 관련된 많지 않은 연구의 대부분이 실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실증적인 연구의 대부분이 SNS 공간에서의 표현 위축과 관련된 연구로 진행되었다는 점, 셋째, 위축효과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독립변인들이 독립적으로 활용되어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위축효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위축효과에 대한 설명력을 극대화해 보고자 했다.

3. 위축효과의 촉진(억제) 요인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자존감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라는 사회, 심리 변인, 표현의 자유와 규제 인식이라는 표현의 자유 관련 변인, 실명성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인 정보(표현) 노출에 따른 인식 변인을 각각 독립변인 군으로 활용하여 위축효과를 예측하고자 했다. 이는 위축효과가 개인이 가진 사회, 심리적 속성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 인식이나 규제 인식, 개인 정보(표현) 노출에 따른 이후의 상황 예측 과정에서도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가. 자존감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자존감 역시 사회적 위축과 관련성이 있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전란영과 김희화(2016)에 따르면 자존감은 의견표명과 같은 사회적 위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수미와 이숙(2000)에 따르면 자존감은 아동의 위축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이 낮을수록 위축행동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박혜정과 홍상황(2014)에 따르면 자존감은 사회적 위축, 사회적 억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홍상황과 이은주(2014)에 따르면 자존감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억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자존감 수준이 낮을수록 위축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예측케 한다.

연구가설 1. 자존감이 낮을수록 위축효과가 높을 것이다.

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충족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경향으로 정의된다(정승아·설경옥·박선영, 2014, 재인용).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경향이 높은 이들은 자신의 타인에 대한 평가를 과도하게 염려하는 불안한 자아상”을 보이게 된다(정승아·설경옥·박선영, 2014, 2,225쪽). 특히 우리나라처럼 집단주의적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는 대학생들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더욱 취약하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Pulford, Johnson & Awaida, 2005).

실제로 김소정과 이승연(2015)에 따르면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은 자기침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박지연(2014)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불안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졸업과 취업 등 다양한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심리적 위축감이 표현의 위축효과를 이끌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연구가설 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위축효과가 높을 것이다.

다. 전통적, 피동적 소통 인식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소통 보다는 수동적인 소통, 능동적인 소통 보다는 피동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속담은 과거부터 전해져오는 조상들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속담이 2017년 현재에도 회자되

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 남과 다른 의사소통 행위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통을 지양하는 한국 국민들의 경향성은 남북전쟁과 이데올로기 대립,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강직한 사랑은 타인의 공박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즉 침묵하면) 큰 탈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김성해, 2016. 11. 16), 남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소수자가 탄압받기 쉽다는 의미로 해석(최종인, 2016. 7. 15)될 여지도 있다. 웅변보다 침묵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침묵은 금이다”, 적극적인 행동보다 침묵이나 현상의 유지를 강조하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조직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이라는 논의(엄상용, 2015), 토론을 위해 침묵은 금이 아니라는 논의(이영태, 2003)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인간이 조직 생활 중 상명하복식 권위주의, 보신주의적 가치에 익숙해지면, 토론에 의한 조직 발전이 어려울 수 있고, 피동적인 소통 방식이 토론을 통한 더 나은 대안창출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침묵은 금이다”와 같은 전통적 소통 인식을 전통적, 피동적 소통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아울러 전통적, 피동적인 소통 인식이 적극적인 표현을 가로막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 연구는 전통적, 피동적 소통 인식이 위축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탐색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했다.

연구가설 3. 전통적, 피동적 소통 인식이 높을수록 위축효과가 높을 것이다.

라. 표현의 자유와 규제 인식

표현(언론)의 자유의 확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표현(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에 표현(언론)의 자유 확장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경우, 즉 현재의 표현의 자유 수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항적(대안적) 형태의 표현행위를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반면, 표현의 자유 확장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경우, 즉 현재의 표현의 자유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항적(대안적) 형태의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정기(2017)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 인식은 표현의 자유 현안에 대한 인식을 거쳐 저항적인 정치 표현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저항적인 형태의 표현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저항적 표현이 위축된다는 점을 예측케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표현의 자유 인식이 낮을수록, 즉 현재의 표현의 자유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의 의견을 유보할 경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케 한다.

한편, 이정기(2017)의 동 연구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 규제 현안에 대한 찬성 인식은 저항적 정치 표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각종 법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폐지를 원하는 인식이 높을수록 저항적인 형태의 표현행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각종 법규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할 경우 저항적 표현행위가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이는 표현의 자유 규제 법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을수록, 즉 현재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저항적 표현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자신의 의견을 유보할 경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케 한다.

연구가설 4. 표현의 자유 인식이 낮을수록 위축효과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5. 표현 규제(법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위축효과가 높을 것이다.

마. 실질적 실명성

인터넷 실명제는 글을 쓰기 이전에 신원 확인을 함으로써 위축효과를 이끌어 내는 대표적 온라인 검열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2012년 8월 인터넷 게시판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 게임 실명제 등이 존재한다(오병일, 2016. 10. 28).

우지숙과 나현수, 최정민(2010)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 이후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숫자, 게시판 참여자의 숫자가 감소, 삭제한 글이 늘어나는 등 인터넷 표현을 위축시키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변상호와 정성온(2012)에 따르면 실질적 실명성은 정치, 경제 이슈에서 의사표현의 위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실명성이 표현의 위축행위를 이끌어 내는 핵심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케 한다.

연구가설 6. 비실명 글쓰기 집단 보다 실명 글쓰기 집단의 위축효과가 높을 것이다.

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전술했듯 위축효과는 “권력을 가진 외부의 직·간접적, 유·무형의 압력에 의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표

현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특정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느끼는 사람은 권력의 압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박과 동료들(Park, Rehg & Lee, 2005)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변인이 표현행동을 하지 않음(Non-Action)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아울러 야오(Yao, J, 2012)에 따르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낮을수록 내부고발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즉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내부고발의도가 낮아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위축효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케 한다.

연구가설 7.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위축효과가 높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2016년 11월 28일 하루 동안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301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148명(49.2%), 여성은 153명(50.8%)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2.29세($SD=2.39$)였다. 학년별 분포의 경우 1학년이 50명(16.6%), 2학년이 75명(24.9%), 3학년이 92명(30.6%), 4학년이 81명(26.9%), 5학년이 3명(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을 살펴본 결과 매우 보수 4명(1.3%), 보수 35명(11.6%), 중도 144명(47.8%), 진보 113명(37.5%), 매우 진보 5명(1.7%)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의 측정

가. 자존감

자존감은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1998)에서 제작, 이승조(2013) 등이 활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하고 있다’, ‘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역)¹⁾’, ‘가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역)’,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역)’, ‘나에게도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역)’, ‘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역)’, ‘내 자신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역)’, ‘전반적으로 나는 실패자인 것 같다(역)’, ‘가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역)’,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역)’ 등 11개 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M=3.19$, $SD=.69$, $\alpha=.88$).

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한기연(1993), 박지연(2014)의 연구에 근거하여 ‘남이 내게 기대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역)’, ‘내가 잘하면 잘 할수록 사람들은 내가 더 잘 할 것이라 기대할 것이다’, ‘내가 일을 훌륭히 못해내면 사람들은 나를 형편없다고 볼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등 15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M=3.04$, $SD=.50$, $\alpha=.88$).

1) ‘(역)’이라고 표시된 항목은 역코딩이 필요한 항목을 의미한다. 역코딩이 필요한 문항은 SPSS의 Transform 메뉴에서 Recode 처리한 뒤, 기존 문항과의 신뢰도 확인 후, 합산평균 하여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다. 전통적, 피동적 소통 인식

전통적, 피동적 소통 인식은 말을 아껴야 하고,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는 전통적 소통 방식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전통적, 피동적 소통 인식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침묵은 금이다'와 같은 3개의 속담(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M=2.94$, $SD=.80$, $\alpha=.65$).

라. 표현의 자유 인식

표현의 자유 인식은 개인이 언론(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대해 생각하는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정기, 2016)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인식 문항은 UN인권선언 채택 60주년 기념 국제인권의식여론조사(2008)에서 활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감시 기능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3가지 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M=4.15$, $SD=.69$, $\alpha=.74$).

마. 표현 규제 (법리) 인식

표현 규제 법리에 대한 인식은 최근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거나 논쟁이 진행 중인 규제 내용이나 법리에 대한 인식(이정기, 2016)으로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할 것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 시민들

의 자유로운 표현이 제한될 것이다’, ‘사이버 검열(카카오톡 검열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할 것이다’, ‘복면금지법(집회현장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임시차단 조치(인터넷 게시글이 사실이라고 해도 요청자의 주장만으로 블라인드 처리하는 제도)는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할 것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승소 여부와 관련 없이 특정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할 것이다’ 등 6개 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M=3.71$, $SD=.77$, $\alpha=.87$).

바. 실질적 실명성

실질적 실명성은 변상호와 정성은(2012)의 연구에 근거하여 SNS, 블로그,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 실명을 사용하는지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아울러 익명으로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단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여, ‘타인이 자신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거나 ‘나를 알아보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만 실질적 비실명 집단으로 구분했다(실명, 가명(타인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가명(타인이 나를 알아보는지 잘 모르겠다)). 실명 집단은 183명(60.8%), 비실명 집단(타인이 자신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은 54명(17.9%), 비실명 집단(타인이 나를 알아보는지 잘 모르겠다)은 64명(21.3%)로 나타났다. 실질적 실명성은 후속 분석을 위해 더미변수 처리했다(0: 실명, 1: 가명).

사. 보복에 대한 두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특정 표현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인식을 의미한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박과 동료들(Park, Rehg & Lee,

2005)의 연구에서 활용된 5개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만약 내가 민감한 표현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지문을 두고 ‘나는 내 표현의 결과로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생활 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나는 불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조직에 의해 비난받게 될 것이다’, ‘내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 등 5개 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M=3.16$, $SD=.87$, $\alpha=.91$).

아. 위축효과

위축효과는 누군가에게 비난당하거나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표현을 망설이게 된 경험의 양으로 측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축효과는 변상호와 정성은(2012)의 연구에서 활용된 위축효과 문항을 기초로 대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위축효과의 상황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위축효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위축효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아울러 학내 문제 위축효과 정치사회적 문제 위축효과로 구분되었다.

온라인 상 정치, 사회적 표현에 따른 위축효과는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누군가에게 비난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임 경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임 경험 있다’ 등 2개 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M=3.20$, $SD=1.04$, $\alpha=.71$).

온라인 상 학내 문제에 대한 표현에 따른 위축효과는 ‘온라인 상에서 우리 대학의 문제(학교, 교수, 행정상의 문제 등)를 지적하는 글을 쓰고자 할 때, 누군가에게 비난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임 경험 있다’, ‘온라인 상에서 우리 대학의 문제(학교, 교수, 행정상의 문제 등)를 지적하는 글을 쓰고자 할 때, 학교 교칙에 의해 처벌받거나 학점, 졸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임 경험 있다’ 등

2개 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M=2.98$, $SD=1.04$ $\alpha=.86$).

아울러 오프라인 공간에서 정치, 사회적 표현에 따른 위축효과는 ‘현실에서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발언하고자 할 때, 누군가에게 비난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임 경험에 있다’, ‘현실에서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말을 하고자 할 때,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임 경험에 있다’ 등 2개 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M=3.15$, $SD=1.03$, $\alpha=.80$).

오프라인 공간에서 학내 문제에 대한 표현에 따른 위축효과는 ‘교내에서 우리 대학의 문제(학교, 교수, 행정상의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할 때, 비난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임 경험에 있다’, ‘교내에서 우리 대학의 문제(학교, 교수, 행정상의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할 때, 학교 교칙에 의해 처벌받거나 학점, 졸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임 경험에 있다’ 등 2개 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M=2.91$, $SD=1.12$, $\alpha=.90$).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4차례의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했다. 종속변인은 온라인 위축효과(학내 문제, 정치 문제)와 오프라인 위축효과(학내 문제, 정치 문제)로 설정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자존감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라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인을 투입했다. 아울러 2단계에는 전통적, 피동적 소통 인식, 표현의 자유 인식, 표현 규제(법리) 인식 변인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인식 변인을 투입했다. 3단계에는 실질적 실명성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변인 등 정보노출과 관련된 변인을 각각 투입했다.

회귀분석에 투입될 모든 독립변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위축효과와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짐작케 하는 변인들로 구성했다. 아울러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 각 단계별 독립변인 군의 투입순서는 종속변인인 위축효과와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1단계에 투입된 자존감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변인은 심리변인에 가깝다. 따라서 종속변인인 위축효과와의 거리가 가장 먼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2단계에 투입된 전통적, 피동적 소통, 표현의 자유 인식, 표현 규제 부정 인식은 자신의 표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되었다. 아울러 3단계에 투입된 실명성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변인은 개인이 특정 표현을 할 때의 정보 노출에 대한 인식, 불이익 등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되었다. 즉 2, 3단계 투입된 변인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변인으로 1단계에 투입된 심리변인에 비해 종속변인과의 거리가 가까울 것으로 보았고, 3단계에 투입된 변인은 자신의 표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어 일반적 표현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된 2단계 투입 변인에 비해 종속변인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울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독립변인 군별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설명량은 심리변인이 가장 낮고, 정보 노출(실명성,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 연령, 학년 등의 인구통계적 속성과 정치성향, 비판성향 등의 변인은 종속변인인 온·오프라인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위계적 회귀분석의 단계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온라인·오프라인 위축효과 결정

요인을 살펴봤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위축효과는 학내 문제에 대한 위축효과와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위축효과로 구분해 살펴봤다. 본격적인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모든 유형, 모든 단계에 걸쳐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했다. 검증결과 모든 단계에서 분산팽창인자(VIF)의 범위가 1.03~1.69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59~.97로 0.1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온라인 학내 문제 위축효과 결정요인을 확인했다. 1단계에 심리변인으로 자존감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자존감($\beta = -.16, p < .05$), 사회부과적 완벽주의($\beta = .15, p < .05$) 변인이 온라인 학내 문제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즉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온라인 학내 문제 위축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량은 7.4%였다. 2단계에는 표현 자유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 인식($\beta = -.15, p < .05$), 표현 규제(법리) 부정 인식($\beta = .20, p < .01$) 변인이 온라인 학내 문제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즉 국내의 표현의 자유 보호의 중요성(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각종 표현 규제 법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온라인 학내 문제 위축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beta = -.15, p < .05$), 사회부과적 완벽주의($\beta = .14, p < .05$)는 여전히 온라인 학내 문제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 설명력은 3%였다. 3단계에는 정보노출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beta = .33, p < .001$) 변인이 온라인 학내 문제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즉 정치사회적 표현 때문에 보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낄수록 온라인 학내 문제에서의 위축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beta = -.04, p < .01$), 표현의 자유 인식($\beta = -.15, p < .05$)은 여전히 온라인 학내 문제에서의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 설명력은 8.8%였다. 결과적으로 표현에 의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국내의 표현의 자유 보호의 중요성(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온라인 학내

문제 위축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정치·사회 문제 위축효과 결정요인을 확인했다. 1단계에는 심리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beta=.23$, $p<.001$)가 온라인 정치·사회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설명량은 8.6%였다. 2단계에는 표현의 자유 인식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전통적, 피동적 소통 인식($\beta=.15$, $p<.01$), 표현의 자유 인식($\beta=-.12$, $p<.1$), 표현의 규제(법리) 부정 인식($\beta=.19$, $p<.01$)이 온라인 정치·사회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즉 전통적, 피동적 소통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국내의 표현의 자유 보호의 중요성(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각종 표현 규제 법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온라인 정치·사회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 설명량은 4.8%였다. 3단계에는 정보노출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beta=.37$, $p<.001$)은 온라인 정치·사회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사회부과적 완벽주의($\beta=.17$, $p<.05$), 전통적, 피동적 소통 인식($\beta=-.13$, $p<.05$), 표현의 자유 인식($\beta=-.12$, $p<.05$) 변인은 여전히 온라인 정치·사회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 설명량은 11.2%였다. 결과적으로 표현에 의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전통적, 피동적 소통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국내의 표현의 자유 보호의 중요성(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온라인 정치·사회 위축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온라인 위축효과 결정요인

구분		온라인 학내 위축			온라인 정치·사회 위축		
		1	2	3	1	2	3
심리	자존감	-.159*	-.147*	-.041+	-.093	-.067	.049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52*	.138*	.131	.234***	.177*	.169*
표현 자유	전통적, 피동적 소통		.022	.003		.152**	.131*
	표현의 자유 인식		-.145*	-.147*		-.121+	-.122*
	표현 규제(법리) 부정 인식		.195**	.116		.191**	.104
정보 노출	실명성			-.021			-.041
	보복에 대한 두려움			.333***			.374***
F		11.847***	6.866***	9.994***	13.986***	9.151***	13.667***
설명량(R^2)		.074	.104	.192	.086	.134	.246

+p<.1, *p<.05, **p<.01, ***p<.001

셋째, 오프라인 학내 문제 위축효과 결정요인을 확인했다. 1단계에는 심리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자존감($\beta = -.17$, $p < .01$)이 낮을수록 학내 문제 위축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량은 6.3%였다. 2단계에는 표현의 자유 인식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 인식($\beta = -.19$, $p < .01$), 표현 규제(법리) 부정 인식($\beta = .25$, $p < .001$) 변인이 높을수록 학내 문제 위축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 설명량은 5.2%였다. 3단계에는 정보노출 변인을 투입했다. 그 결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beta = .28$, $p < .001$)이 높을수록 오프라인 학내 문제 위축효과가 커졌다. 자존감($\beta = -.07$, $p < .1$), 표현의 자유 인식($\beta = -.19$, $p < .01$), 표현 규제(법리) 부정 인식($\beta = .19$, $p < .05$)은 여전히 오프라인 학내 문제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 설명량은 6.3%였다. 결과적으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국내의 표현의 자유 보호의 중요성(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오프라인 학내 문제 위축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오프라인 정치·사회 문제 위축효과 결정요인을 확인했다. 1단계에 투입된 심리변인 중 자존감($\beta = -.19, p < .0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beta = .14, p < .05$) 변인은 오프라인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설명량은 8%였다. 2단계에 투입된 표현의 자유 변인 중 표현의 자유 인식($\beta = -.14, p < .05$), 표현 규제(법리) 부정 인식($\beta = .20, p < .01$)은 오프라인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 설명량은 4%였다. 3단계에 투입된 정보노출 변인 중 보복에 대한 두려움($\beta = .27, p < .001$)은 오프라인 정치·사회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표현의 자유 인식($\beta = -.14, p < .05$), 표현 규제(법리) 부정 인식($\beta = .14, p < .05$)은 여전히 오프라인 정치·사회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 설명량은 5%였다. 결과적으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국내의 표현의 자유 보호의 중요성(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오프라인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위축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오프라인 위축효과 결정요인

구분		오프라인 학내 위축			오프라인 정치·사회 위축		
		1	2	3	1	2	3
심리	자존감	-.174**	-.156*	-.066+	-.188**	-.166*	-.08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13	.092	.086	.136*	.099	.093
표현 자유	전통적, 피동적 소통		.039	.023		.096	.081
	표현의 자유 인식		-.185**	-.187**		-.139*	-.140*
	표현 규제(법리) 부정 인식		.253***	.185**		.201**	.139*
정보 노출	설명성			-.013			-.027
	보복에 대한 두려움			.283***			.265***
F		10.073***	7.671***	9.085***	13.021***	8.044***	8.953***
설명량(R^2)		.063	.115	.178	.080	.120	.176

+ $p < .1$, * $p < .05$, ** $p < .01$, *** $p < .001$

2. 연구결과의 요약

4차례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단계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변인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표현의 자유 인식 변인이다. 즉 민감한 표현을 했을 때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을수록, 국내의 표현의 자유 보호의 중요성(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모든 유형의 위축효과가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설명성은 모든 유형의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들의 위축효과가 설명 표현 유무와는 별개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표현의 자유 규제(법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최종단계에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변인이 투입되자 설명력이 사라졌지만, 3단계까지는 위축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각종 표현 규제 법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위축효과가 높아지게 됨을 보여주는 결과다. 다만 위축효과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리, 즉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 보다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차원의 변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는 점을 예측케 한다.

아울러 심리변인 중 자존감 변인은 학내 문제에서만 최종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존감이 낮을수록 온·오프라인 학내 문제에서 위축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사회 문제에서 자존감은 최종단계에서 위축효과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는 직접적인 대학생들에게 관련도가 높은 문제, 즉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표현의 경우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의 설명력이 작동하지만, 관련도가 낮은 관념적인 문제에 대한 표현의 경우 자존감의 설명력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예측케 한다. 한편, 전통적, 피동적 소통에 대한 인식의 경우 온라인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위축 효과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는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위축

효과 결정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표 4〉 연구결과의 요약

		온라인 학내 위축	온라인 정치·사회 위축	오프라인 학내 위축	오프라인 정치·사회 위축
심리	자존감	-(최종)		-(최종)	-(2단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2단계)	+(최종)		+(1단계)
표현 자유	전통적, 피동적 소통		+(최종)		
	표현의 자유 인식	-(최종)	-(최종)	-(최종)	-(최종)
	표현 규제(법리) 부정 인식	+(2단계)	+(2단계)	+(최종)	+(최종)
정보 노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최종)	+(최종)	+(최종)	+(최종)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의 적’으로 평가받는 위축효과의 실체를 밝히 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20대 대학생들에 집중하고, 위축효과를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위축효과, 학내 문제에서의 위축효과,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위축효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위축효과의 실체를 규명하고, 위축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유형의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변인과 표현의 자유 인식 변인이었다. 즉 민감한 표현을 했을 때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인식도가 높을수록, 국내 표현의 자유 보호의 중요성(필요성) 인식도가 낮을수록 위축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표현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연구

결과(Park, Rehg & Lee, 2005), 표현의 자유 보호의 중요성(필요성) 인식도가 낮을수록 저항적 표현행위가 위축된다는 연구결과(이정기, 2017)와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의 위축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감한 표현을 한다고 해서 취업,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위축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국내의 표현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지 못한 현실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학 교양과정 혹은 대학 입학 이전의 사회윤리 교과목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의 중요성과 세계인권선언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표현의 자유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교육, 국경없는 기자회 등의 언론의 자유 지수 순위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비판적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도입하거나,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장기적인 캠페인 전개(공익광고 등)를 통해 대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강화를 통해 공익적인 측면의 표현을 한 표현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기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켜 줄 수 있을 때, 위축효과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든 유형의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은 실명성 변인이었다. 이는 실명으로 글을 쓰거나 말할 때 위축효과를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익명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도 위축효과가 나타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경우 익명으로 쓴 글도 IP추적 등을 통해 신원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종의 불안감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

에 의하면 위축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변인이었다. 물론 이러한 점은 추론에 불과한 것으로 과학적인 형태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온·오프라인 학내 문제의 위축효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존감 변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학내 문제의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발언을 높임으로써 학내 민주화, 학내 학생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 홍보 프로그램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지, 자신에 대한 애정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학내의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통해 학습 과정, 교우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기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경우 대학생들이 위축효과를 억제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존감이 학내 문제의 위축효과에만 영향을 미치고, 정치·사회 문제의 위축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관여도가 높고, 따라서 자신의 표현이 제한된 주변인에게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조직 속에서의 위축효과에만 자존감이라는 심리적 변인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치·사회적 이슈와 같이 거시적이면서 관여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담론에 대한 위축효과와 경우 자존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차원의 변인이 아닌 보다 구조적인 차원의 변인이 개입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비록 온라인 위축효과에 한정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전통적, 피동적 소통의 영향력이라는 관습적, 교육적 변인의 영향력이 정치·사회적 위축효과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즉 관여도가 높은 학내 문제의 위축효과는 보다 개인적인 측면의 변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관여도가 낮은 정치·사회적 문제의 위축효과는 보다 구조적인 변인이 개

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제한된 결과에 기반한 추론에 불과한 것으로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온라인 정치·사회적 문제의 위축효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전통적, 피동적 소통 인식 변인이었다. 먼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온라인 정치·사회적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고려 정도가 강한 대학생들의 경우 타인이 기대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고려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표현을 꺼리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온라인 상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경우 오프라인 상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표현(예컨대 집회시위 참여 등)과 달리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러한 기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검색된다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양진하, 2016. 3. 3). 이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정치·사회적 문제의 경우 기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중시하는 대학생들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통적, 피동적 소통 인식의 경우 온라인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위축효과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는 온라인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표현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 지는 경우가 많고, 댓글 등의 형태로 즉각적인 반응이 유발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온라인 상에서의 정치·사회적 표현의 경우 다른 공간, 유형에서의 표현보다 표현을 접하게 되는 대상자가 특정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울러 정치적, 사회적 표현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표현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여과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온라인 상에서의 정치·사회적 표현의 경우 오프라인 상에서의 표현이나 온라인 상에서 교내의 문제에 대한 표현 보다 자극적인 반응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유발되는 표현이다 보니 가만히 있으면 증간은 간다는 식의 전통적, 피동적 소통 인식(전통적 관

습과 교육에 기반 한)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기초통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정치·사회적 표현은 다른 유형의 표현에 비해 대학생들의 위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표현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정치·사회적 문제의 위축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개인의 행복을 이끌어 내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캠페인 전략을 통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전통적 관습과 교육에 기반한 전통적, 피동적 소통 인식이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캠페인 전략을 통해 전통적, 피동적 소통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온·오프라인 학내문제의 위축효과 결정요인은 자존감, 표현의 자유 인식, 보복에 대한 두려움 변인이었다. 따라서 학내문제의 위축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자존감을 높이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기본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종 법규 제정과 법규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공익적 표현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다(더 나아가 장려 받는 행위라는)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메시지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온라인 정치·사회문제 위축효과 결정요인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전통적, 피동적 소통, 표현의 자유 인식, 보복에 대한 두려움 변인이었다.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의 정치, 사회적 위축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감소시켜주는 방향,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소통방식의 문제점을 상기시키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종 법규 제정과 법규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공익적 표현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다(더 나아가 장려 받는 행위라는)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메시지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오프라인 정치, 사회문제 위축효과 결정요인은 표현의 자유 인식, 보복에 대한 두려움 변인이었다. 따라서 오프라인 정치, 사회적 위축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민주주의 교육과 함께 각종 법규 제정과 법규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공익적 표현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다(더 나아가 장려 받는 행위라는)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메시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위축효과의 결정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를, 위축효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인 제안을 수행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실용적 측면의 가치를 가진다. 다만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은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제한한다. 보다 포괄적인 연령대를 설정한 후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고,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위축효과 예방 전략을 제안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위축효과에 대한 충분한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 위축효과는 이 연구의 핵심 측정 변인이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구성한 개념이지만, 위축효과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포괄적 의견 수렴을 통한 개념화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낮은 설명력도 연구의 한계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위축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독립변인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심층인터뷰 등의 질적 방법론을 활용한 독립변인의 개발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보복에 대한 두려움 변인은 보복의 주체별(학교, 정부 등)로 세분화하려는 노력이 전제될 때, 종속변인에 대한 보다 높은 설명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이 연구는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식-태도-행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물론 이는 이 연구가 가진 탐색적 연구로서의 한계이기도 하다. 다만, 보다 이론적으로 타당한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각 독립변인 군이 가진 충분한 인과 관계성 검토가 전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반드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 참고 문헌

[국내문헌]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 (1998). <심리평가 핸드북 I>. 서울: 학지사.
- 김소정 · 이승연 (2015, 8월).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분노억압 간의 관계: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서울: 한국심리학회.
- 김수미 · 이숙 (2000). 아동의 위축행동에 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10호, 13-21.
- 김형성 · 임영덕 (2009). 미국의 '위축효과법리'와 그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20권 2호, 99-131.
- 박경신 (2009).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15권 3호, 1-46.
- 박지연 (2014).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정 · 홍상황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또래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억제에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5권 3호, 1-18.
- 백윤정 · 김보영 · 김은실 (2016).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윤리적 리더십이 내 부고발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개발연구>, 19권 3호, 87-113.
- 변상호 (2015).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 다수의 영향력 지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방송학보>, 29권 5호, 139-176.
- 변상호 · 정성은 (2012). 실명성 직업상 조직소속 여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SNS공간에서 의사표현 위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6권 4호, 105-132.
- _____ (2013). 대기업의 권력이 SNS공간에서의 의사표현 위축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7권 5호, 190-213.
- 엄상용 (2015). 조직의 침묵은 금(金)이 아니라 독(毒)이다. <합참>, 65호, 136-140.
- 우지숙 · 나현수 · 최정민 (2010).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행정논총>, 48권 1호, 71-96.
- 이승조 (2013). 개인 성향으로서의 자존감과 공부정 프레이밍의 상호작용이

- 국제 기아 돕기 캠페인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7권 5호, 56-77.
- 이재진 · 이정기 (2011). <표현, 언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정기 (2016).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정기 (2017). 대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인식과 저항적 정치 표현행위 결정 요인 연구: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7권 3호, 137-171.
- 전란영 · 김희화 (2016). 부모의 비밀관적 양육 및 과잉간섭적 양육이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4권 2호, 57-67.
- 정승아 · 설영옥 · 박선영 (201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 수치심 및 부정적 인지대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권 6호, 2,225-2243.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상황 · 이은주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사회적 억제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3권 1호, 49-69.
- 황성기 (2008).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법학논총>, 25집 1호, 7-37.
- Yao, J. (2012).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내부고발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해외문헌]

- Park, H., Rehg, M. T., & Lee, D. (2015). The influence of confucian ethics and collectivism on whistleblowing intentions : A study of south korean public employe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58, 387-403.
- Pulford, B. D., Johnson, A., & Awaida, M. (2005). A cross-cultural study of predictors of selfhandicapping in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4), 727-737.

[기사]

- 구민정 (2016. 12. 5). [외강내약 대학가①] 밖에선 ‘민주주의 세우자’...안에선 ‘총학 선거 잡음’. <헤럴드경제>. UR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205000087>

- 권귀순 (2010. 1. 26). MB정권, 피디수첩 패소했지만 ‘방송집주기’ 성공.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401099.html>
- 김성해 (2016. 11. 21). 왜 워터게이트에 주목해야할까? 답아도 너무 답았다. <허핑턴포스트>. URL: http://www.huffingtonpost.kr/sunghae-kim/story_b_12999088.html?utm_id=naver
- 김예지 (2016. 9. 2). 이불·물통 책임지라며 8년 소송, ‘치졸한 정부’, <오마이뉴스>.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0991
- 김주언 (2012. 9. 3). 째새라 부르면 벌금? 명예훼손 남발 이대로 좋은가.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53>
- 김창룡 (2016. 11. 24). 박근혜 정권 언론탄압 주역들 처벌받아야 한다. <시사저널>. URL: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0965>
- 양진하 (2016. 3. 3). 대자보 쓰면 다친다? 테러방지법에 대학가 술렁. <한국일보>. URL: <http://www.hankookilbo.com/v/025cd8583b0e45649d34aa5cb9a70d25>
- 오병일 (2016. 10. 28). 디지털보안가이드: 통신 보안-온라인 검열을 우회하는 방법. <슬로우뉴스>. URL: <http://slownews.kr/59306>
- 이영태 (2003). 침묵은 금이 아니다!: 참여정부 ‘토론 공화국’ 표방...토론문화 급속한 확산. <주간한국>, 1964호, 20-22.
- 이희정 (2014. 10. 10). [지평선] 위축 효과. <한국일보>. URL: <http://www.hankookilbo.com/v/36ccd5ba33874cbea283a81b6fc6ff2>
- 최종인 (2016. 7. 15). 모난 돌이 정 맞지 않는 세상을 위해. <오마이뉴스>.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6988

■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Chilling Effect," the Enemy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College Students: A Focus on the Determinants of the Chilling Effect on Expressions About Sociopolitical and Campus Issues Online and Off-Line

Lee, Jeong-ki
Principal Researcher, Hanyang University

This paper presents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chilling effect, which is considered the enemy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study specifically sets out to check determinants by examining the chilling effect on the expressions of college students about campus and sociopolitical issues online and off-line. The cor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chilling effect on expressions pertaining to campus issues online were self-esteem (-), freedom of expression awareness (-), and fear of retaliation (+). Second,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chilling effect on expressions pertaining to sociopolitical issues online wer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 passive communication (+), and fear of retaliation (+). Third,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chilling effect on expressions pertaining to campus issues off-line were self-esteem (-), freedom of expression awareness (-), and fear of retaliation (+). Finally,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chilling effect on expressions pertaining to sociopolitical issues off-line were freedom of expression awareness (-) and fear of retaliation (+). These findings are important because they shed some light on the true nature of the chilling effect, and based on these findings, we can make practical proposals to overcome it.

Keywords: freedom of expression, chilling effect, fear of retaliation,
expressions on campus issues, expressions on political issues

[논문투고일 2017. 11. 2. 논문수정일 2017. 12. 7. 게재확정일 2017. 12. 11.]